

# LG디스플레이 노조, 베트남·캄보디아서 봉사활동

## 열악한 학습시설·위생 환경 개선

LG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6년 연속 해외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USR(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LG디스플레이 노동조합 소속 직원 300여 명은 지난 5월부터 약 두 달간 릴레이 방식으로 캄보디아 씨엠립과 베트남 하이퐁 지역의 초등학교 두 곳을 찾아 열악한 학습 시설 및 위생 환경 개선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캄보디아 씨엠립과 베트남 하이퐁 지역 모두 유명한 관광 도시지만 도심지를 조금만 벗어나도 학교 수가 부족하고 시설도 열악하다. 이에 LG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은 2013년부터 매년 이들 지역의 초등학교를 찾아 도서관 건립, 교실 개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 LG디스플레이는 캄보디아 주민 및 초



LG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은 지난 5월부터 약 두 달간 릴레이 방식으로 캄보디아 씨엠립과 베트남 하이퐁 지역의 초등학교 두 곳을 찾아 열악한 학습 시설 및 위생 환경 개선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LG디스플레이

등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눈 검진도 지원했다. 자외선이 강한 열대기후 특성상 백내장 등 안과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검진을 받은 모두에게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선글라스를 제공했다. 특히 백내장, 녹내장으로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실명예방재단과 함께 무료로 수술도 지원한다. /구세원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동부제철, 포스코와 누적거래 3000만톤 달성

포스코가 12일 포스코센터에서 동부제철 최고 경영진을 초청해 거래누계 3000만톤 달성 기념행사를 열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부제철 김창수 사장, 포스코 장인화 사장 등 양사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참석해 향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했다.

동부제철은 냉연과 도금강판 등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며 냉연의 원소재인 열연

을 포스코로부터 매년 약 80만 톤 구입하는 포스코의 대형 고객사 중 하나다. 동부제철은 포스코와 1973년 4만톤 거래를 시작한 후 돈독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거래 46년 만인 올해 거래누계 3000만톤을 달성했다.

이번 동부제철의 누적 거래 3000만톤은 단일 고객사로서는 최초 기록으로 올해 포스코 국내 생산량의 8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양성운 기자 ysw@



동부제철-포스코 누적거래 3천만톤 달성 기념식. (왼쪽부터) 김민중 동부제철 부장, 천성래 포스코 영업선재마케팅실장, 유홍섭 동부제철 부사장, 장인화 포스코 철강부부장, 김창수 동부제철 사장, 정택 포스코 마케팅본부장, 김중환 동부제철 상무, 이영우 포스코 열연판매그룹장이 포스코와 동부제철의 거래누계 3천만톤 달성 행사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포스코

# 최종구 출마설



## 기지 수첩

김희주 (파이낸스&마켓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요즘 왜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진짜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

요즘 금융업계 관계자들이나 기자들이 모이면 항상 나오는 얘기다. 최근 최종구 위원장의 언행을 보면 출마설이 설(說)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진 것이다.

본격적으로 출마설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 최 위원장이 강원 고성 산불현장을 찾으면서다. 최 위원장의 고향은 강원도다. 본관이 강릉이고 지역 명문고인 강릉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만큼 출마하기만 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들리는 얘기로는 최 위원장이 강원 산불현장을 찾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에 저촉 될 것을 우려해서다.

최 위원장의 출마를 점치는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최 위원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쏘카(SOCAR), 키코(KIKO) 등에

대해 가감 없이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지난달 22일 택시업계와 쏘카·타다 사이 갈등을 놓고 이재웅 쏘카 대표를 향해 “이기적이고 무례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10일에는 키코 사태에 대해 “키코가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한다”며 키코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동안 전광우, 진동수, 김석동, 신제윤, 임종룡 등 역대 금융위원장 중 최 위원장처럼 공개적으로 자기 생각을 피력한 인물은 거의 없었다. 또 최 위원장은 1982년 행정고시에 합격 이후 30년 이상 관직에만 있었고 말을 아끼는 관료로 평가돼 왔다. 그랬던 최 위원장이 이 같은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출마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안타까운 것은 최 위원장의 출마설로 금융위 이슈가 정치화되고 금융당국 수장의 출마 여부에 시선이 너무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최 위원장의 임기는 아직 1년 넘게 남았다. 지난 2017년 취임 당시 내세웠던 생산적·포용적 금융은 어디로 갔을까. /hj89@metroseoul.co.kr

## 오늘의 운세 6월 14일 (음 5월 12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구름 속 태양을 의심하지 말고 노력. 48년생 만나서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라. 60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다. 72년생 심심은 고단한데 재물은 들어온다. 84년생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떠나도 거칠 것이 없다.
- 소**  37년생 건강이 염려되니 먹는 것에 주의. 49년생 모심으러 갈 때는 장화를 신어라. 61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이 생기니 한 단계 상승. 73년생 소금장사 나서는 데 비 오는 격. 85년생 자신의 어려움을 모두에게 노출할 필요는 없다.
- 호랑이**  38년생 마음은 바빠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50년생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 한다. 62년생 비상금을 활용해야 한다. 74년생 움직이는 순간 성공이 시작된다. 86년생 저돌적인 일 처리로 남의 원망을 살 수 있다.
- 토끼**  39년생 나이 든다는 것은 늙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 51년생 내가 믿음을 가져야 상대도 설득할 수 있다. 63년생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75년생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전진. 87년생 실망하기는 이리니 여유를 갖고 다시 대응.
- 원숭이**  40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이 건강에 좋다. 52년생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니 마음이 싱싱생생. 64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즐거운 날. 76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내 실수도 튀어나온다. 88년생 마음을 굳건히.
- 뱀**  41년생 피곤이 풀리지 않으니 좀 쉬어야 할 때. 53년생 남쪽으로 길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볍다. 65년생 물이 멀리 가니 마음도 멀어진다. 77년생 주변의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89년생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 말**  42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54년생 대목장 집에 기둥이 휘었다더니 주변부터 살파라. 66년생 내 것은 작아 보이나 내 자식은 커 보인다. 78년생 먹을 복이 많은 날이다. 90년생 십년 묵은 체증이 해소되는 느낌.
- 양**  43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힘껏 노를 저어라. 55년생 예의 바른 행동은 어딜 가나 대접받게 한다. 67년생 내가 편안해야 집안이 잘 돌아간다. 79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된다. 91년생 주변에 시샘하는 사람이 많다.
- 원숭이**  44년생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음을 흔들려댄다. 56년생 정보를 잘못 알 수도 있으니 공부하라. 68년생 주변의 실수를 포용하라. 80년생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시비도 생긴다. 92년생 하던 일이 큰 성과를 내서 명예를 높인다.
- 닭**  45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는다. 57년생 간소한 속삭임이 있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 69년생 지인 관리를 잘 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81년생 구름이 하늘을 가리니 일을 늦추는 것이 상책. 93년생 동상 걸린 발을 얼음물에 담그는 격.
- 돼지**  46년생 공기가 좋으니 여행을 떠나보라. 58년생 일이 미뤄져도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70년생 귀인을 만나면 장기투자도 괜찮다. 82년생 눈앞의 이익보다 내일을 생각해서 행동해야 한다. 94년생 내가 높은 곳에 내가 걸린다.
- 돼지**  47년생 남의 의견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 59년생 일시적인 감정으로 도를 벗어나 체면이 구겨진다. 71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장을 제시하는 날. 83년생 능력을 발휘하여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95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성실로 극복.



# 김상회의四季

## 가정의 평화를 부르는 관음기도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를 갖고 있다.’ 톨스토이가 쓴 명작 고전 ‘안나카레니나’의 첫 문장은 작품만큼이나 유명하다. 이 문장이 말해주듯 세상의 많은 가정들은 나름대로의 문제거리를 하나 또는 몇 개씩 갖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평화로우 보이는 가정도 속을 들여다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다. “매일 아침 물 떠놓고 기도라도 하고 싶어요.” 가정불화로 고민이 많은 사람이 하던 말이다. 그는 필자가 주석하는 월광사를 찾아 진짜 기도를 올리고 싶다고 했다. 몇 달의 기도 끝에 다행스럽게 불화가 잦아들었고 크게 만족하고 있다. 가정에서 부부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굳는다. 그런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랑받지 못하고 차가운 집안 공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한다. 형제자매 간 충돌도 흔한 일이다. 어머니가 노환으로 입원하자 간병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던 가정이 대표적이다. 형제자매 사이를 좋게 되돌리려고 장남이 택한 방법은 관음기도였다. 관음보살은 크나 큰 자비심으로 서원하는 보살인데 공덕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탁한 당장의 힘겨움을 덜어준다.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이 있을 때 자녀들이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겼을 때 관음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 법화경에는 관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흉수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고 집안에 머물고 있는 악귀가 힘을 쓰지 못한다고 전하고 있다. 다툼에서 벗어나고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 우환이 줄어들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6
		4	9	7	8	5		
1	5							7
	7			2			8	5
	6		5	8	3			9
		4			3			9
		8		4			5	6
9		1	7	5				

		2		3				9
	6		2		9			1
		3					5	
	5		3		1			6
1	7							2
		6	8			2	1	
8								9
3	9		1		4			8

스도쿠 정답								
8	7	5	2	1	9	6	3	4
9	5	6	7	8	3	1	2	4
1	6	2	9	8	7	5	3	4
6	1	8	5	2	9	7	3	4
5	8	7	1	9	2	6	4	3
2	9	4	6	5	1	8	7	3
3	5	8	7	6	1	9	2	4
9	6	1	8	5	2	7	3	4
7	2	1	9	3	6	8	5	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22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324호